

여수 거문도 갯바위 생태계 회복 중

1년간 생태휴식년제 낚시객 통제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키로 내년 1월까지 오염물질 정화활동

무분별한 낚시객들로 상처를 입은 여수시 거문도 섬의 생태계가 다시 회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낚시로 만든 붓돌이나 불법 낚시 쓰레기가 쌓이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를 깨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1년간 낚시객들이 통제된 결과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거문도 서도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갯바위 오염도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회복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문도 전 해안으로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무분별한 낚시, 해양 레저 활동 등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제도다.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등 3개의 유인도로 구성되어 있고 교량(연도교)으로 3개 섬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그동안 거문도 지역은 낚시객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년 동안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서도의 서쪽 해안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생태계 회복에 힘썼다.

지난해 9월 13일부터 제도 시범 운영기간 동안 117명이 투입돼 17차례에 걸쳐 813kg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또 낚시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폐납 272kg을 제거하고 낚시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뚫은 구멍(천공) 180여 곳을 복원했다.

무단 출입에 대한 단속과 불법행위 관리를 위해 207명의 순찰인원이 순찰을 진행해 33건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국립공원공단의 거문도 오염실태 조사에서 '심각' 수준이었던 조사 지점 9곳의 오염도도 모두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회복됐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거문도에서 불법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객을 적발해 계도·단속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준으로 회복됐다.

폐납과 해양쓰레기의 양, 생태계 훼손 정도를 평가한 '갯바위 종합오염도'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1년 여만에 10.3점에서 6.5점으로 37% 감소했다. 오염도가 11점 이상이면 '심각' 수준이고, 6~10점이면 '보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당 수거한 폐납은 11.1개에서 0.1개로, 해양쓰레기는 8.2개에서 1.1개로 줄었다.

따개비 등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해양생물의 평균 서식밀도도 1㎡당 5.54 개체에서 휴식제 후 8.77 개체로 58% 높아졌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서도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11월부터 거문도 전 지역(동도, 서도, 고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지역주민, 낚시어선단체, 시민단체, 해양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폐납 등 미처리 오염물질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일부 해안을 체험구간으로 설정

해 주민들이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 등을 운영한다. 체험구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양생물의 감소와 갯바위 오염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식 구간과 교차 운영하기로 했다.

수중 생태계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수중 오염원 제거 활동도 병행한다. 일반 낚시객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11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후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염도 감소 및 생태계 건강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다른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무등산 생태이야기 ‘수어’로 들어요”

무등산동부사무소, 청각장애인 생태수어 해설 ‘QR코드’ 제작

화순군 수어통역센터와 협업

청각장애인도 무등산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청각장애인이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셀프탐방을 할 수 있도록 생태수어해설 ‘QR코드’를 제작했다. 화순군 수어통역센터와 협업을 통해 기존 수어에 없는 ‘생태수어(25단어)’를 개발하고 생태수어해설 영상을 링크한 QR코드(6개)를 제작했다.

수어는 ‘수화언어’의 줄임말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생태수어’는 생태환경에 관한 단어를 수어로 표현한 것으로 깃대종, 수달, 탈조장나무, 주상절리대, 입석대, 서석대, 생강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QR코드는 자연관찰로와 도



수달을 표현하고 있는 ‘생태수어’

원야영장 해설판에 부착돼 있으며, 생태수어해설 영상은 무등산국립공원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이번 QR코드 제작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원을 방문하실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흑산도 진리당 주변 순환 자연관찰로 예약제 시행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초령목을 볼 수 있는 흑산도 자연관찰로 구간에 대한 탐방로 예약제가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흑산도 자연관찰로 구간에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하는 구간은 흑산도 진리당 주변을 순환(연장 0.7km, 20분)하는 자연관찰로다. 이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초령목의 자생지를 포함해 서남부 도서지역의 특정식물 및 다양한 자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해당구간의 탐방로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수용인원은 하루 37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할 하려면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전일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는 전화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1인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자 미달 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흑산도본소에서 당일 현장예약이 가능하다.

해당구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며, 탐방로 예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기간 동안 참여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한 탐방객은 흑산도 자연관찰로 입구 진리당에서 QR코드 입장권을 현장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인증 후 입장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복지부, 노숙인 보호 대책 지자체 간담회

거리순찰·상담반 운영,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대응체계 구축

동절기에 한파 또는 폭설에 취약한 노숙인들을 위한 지자체 영상 간담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동절기를 대비해 한파와 폭설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할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중점 과제는 ▲동절기 집중 보호 대상 선정 및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거리순찰 및 상담 강화 ▲

응급 잠자리 제공 ▲구조·물품 보급 ▲급식 지원 ▲ 시설물 안전점검 ▲위기 노숙인 신고 안내 및 신속한 대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리순찰·상담반을 운영하며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응급보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개방하고,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는 관내 무료급식소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노숙인 시설에 대한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들의 면역체계를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및 독감 예방 접종을 안내하며 감염병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 추진 기간은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며, 맹추위가 예상되는 12월부터 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노숙인은 각각 110명, 628명 으로 집계됐으며 노숙인시설은 광주에 3곳, 전남에 7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신속하게 위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시-도시공사, 탈 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업무협약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탈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와 ‘탈 시설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은 광주시의 탈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탈 시설 자립생활보장 5개년 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탈 시설 장애인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을 뜻한다.

협약에는 광주도시공사가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을 위해 공사에서 관리중인 매입입대주택 64호를 2026년까지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1차 탈 시설 자립지원 계획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제2차 계획은 탈 시설 자립생활 육구 실태조사 결과, 자립을 희망한 210명 중 80명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탈 시설 장애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출시 기념 20% 할인 한정판에 ★

“남도맛기행” 먹거리 굿즈 출시



구매문의 (주)더킹핀 070-4238-6768

달콤주주
GWANGJU · NAJU

광주와 나주의 디저트로 하루를 달콤하게 시작

나주배 쌀밥
Dalgomjuju

₩13,000
10,400 원

담솔목주
DAMYANG · MOKPO

담양과 목포를 담은 한 잔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루를 마무리

담솔목주

₩15,000
12,000 원

01. 광주의 오월 이야기를 담은 우리밀 오월쿠키 | 02. 나주의 쌀과 배로 건강하게 만든 나주 배쌀밥 | 01. 담양 대잎솔이 들어간 약주 | 02. 목포 앞바다에서 잡아 말린 수제 쥐포 | 03. 청정 전남 바다의 김으로 만든 아몬드김스낵